

中世國語의 齒音의 口蓋音化

이 명 규
(한양대학교)

1. 서론

本稿는 國語의 口蓋音化 현상을 통시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近代國語 以前の 口蓋音化 現象을 考察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國語의 音韻史的 觀點에 의하면 분명히 口蓋音化 現象은 일반적으로 16세기 이전에는 中央語의 't' 구개음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中央語의 't' 구개음화 현상은 近代國語¹⁾ 이후에 새로운 음운 규칙 첨가(rule addition)현상으로 등장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國語에서는 훈민정음 시대인 15세기 중엽 당시 소위 현재의 口蓋音으로 간주하는 'ㅈ' [tʃ], 'ㅊ' [tʃʰ] 등이 오늘날 그것과는 다른 치음(또는 치경음) [ts], [tsʰ]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허웅(1964)을 위시하여 이기문(1964, 1972a, 1972b), 이명규(1974, 1992), 강신항(1983), 송민(1985), 김주필(1985) 등이 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훈민정음에서 이들 ㅈ, ㅊ 등을 齒音으로 規定했듯이 당시에 齒音 'ts, ts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점에 반하여 이것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오늘날과 같은 구개음 'tʃ, tʃʰ'로 音韻變異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異見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만이 국어음운사에서 口蓋音化에 대한 바른 定立을 설정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치경음으로서의 'ㅈ [ts]'이 구개음 'ㅈ [tʃ]'으로 變化되는 바른 경로를 규명하지 않고는 't' 구개음화를 운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훈민정음 당시의 諸 文獻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正音문헌 모두를 세밀히 검토하여 통시적으로 소위 齒音의 變化과정を 고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齒音의 口蓋音化를 考察하는 研究가 本稿의 주된 논의가 될 것이다. 'ㅈ, ㅊ' 등의 다음에 나타나는 모음의 혼란 형태가 단순한 誤記가 아니라면 이것은 本稿의 論議에 相當한 言語形態의 重要 資料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分析해 나가는 방법으로 論旨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2. 中世國語의 齒音

2.1. 齒音의 調音位置

現代國語에서 口蓋音化라면 同化現象의 하나로 口蓋音이 아닌 ㄷ, ㄸ 등과 같은 音이 語原의 ㅅ, ㅆ 앞에서 口蓋音 ㅈ, ㅊ 등으로 變化되는 現象을 指稱하고 있다. '더디다'가 口蓋音化되지 않는 것은 '-디-'의 ㅅ가 語原의 ㅅ가 아니고 '-디' [i]에서 由來된 ㅅ인 까닭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現代國語의 口蓋音 ㅈ, ㅊ에 對한 歷史的 考察을 해야할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本稿가 現代國語에 對한 考察이 아닌 近代 以前에 主眼을 두는 것일진대 近代 以前에 있어서 ㅈ, ㅊ 등에 對한 音價를 먼저 살피는 것이 敘述上 순리일 것으로 믿어짐에서다.

우리는 때로 現代의 意識에 執着된 나머지 現代를 基準으로 한 그릇된 偏見이 現代 以前의 言語의 事實에 作用되어 왜곡된 見解를 남게 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現代國語에서 ㅈ, ㅊ 등이 口蓋音으로 發音된다 해서 이들 音이 近代 以前으로 소급되는 경우, 現代와 同같은 音價를 갖고 있었다고 斷言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어진다.

1) 국어사에서 근대국어는 임진란 이후 17세기~19세기 말(갑오경장)까지의 국어를 말하며 중세국어는 10세기~16세기의 국어를 말하는데 이를 前, 後期로 나눌 때, 후기 중세국어는 대략 15세기~16세기의 국어를 의미한다. 이기문(1972a), 「국어사개설」(서울:민중서관) P. 40~42

따라서 口蓋音化에 前提되는 스,ㅅ들이 歴史的으로 어떤 音價를 지니고 現代까지 이르렀을
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前期 中世語 以前에서는 이들 音에 對해 規定된 資料가 없어 明確히 알 수 없지만 15世紀
國語에서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선 「訓民正音」에 齒音으로 規定된 事實부터가 우리의 注目
을 끌게 한다. 卽

- 스. 齒音. 如卽字初發聲
- ㅅ. 齒音. 如侵字初發聲
- ㅆ. 齒音. 如戌字初發聲

이라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音이 五音의 하나인 齒音으로 同一한 位置에서 調音됨을
알 수 있는 것 以上은 더 밝힐 수는 없게 된다.

그런데 <月印釋譜>卷一の 「世宗御制訓民正音」에서는 齒音에 對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
다.

1a. 漢音齒聲은 有齒頭 正齒之別하니

.....
中國소리엿 나소리는 齒頭와 正齒에 골히요미 잇느니
스 ㅅ ㅆ ㅈ ㅊ ㅅ 字는 用於齒頭하고
(이 소리는 우리 나랏소리에서 열브니 헛그티 웃닛머리에 다느니라)
ㅈ ㅊ ㅈ ㅈ ㅈ 字는 正齒하느니
(이 소리는 우리나랏 소리에서 두터브니 헛그티 아랫닛므유메 다느니라)

또한 이와 관련해 <四聲通解>末尾에 붙어 있는 四聲通攷 凡例에서도

1b. 凡齒音 齒頭則舉舌點齒, 故其聲淺

整齒則卷舌點腭, 故其聲深, 我國齒聲스ㅅㅈ在齒頭 整齒之間,
於訓民正音 無齒頭 整齒之別, 今以齒頭爲
ㅈㅈㅈ, 以整齒爲 스ㅅㅈ 以別之

로 밝혀져 있다. 위의 1a, b 두 資料의 說明을 자세히 관찰하면,

- (1) 中國語齒音 發音法 즉, 調音法이 a, b가 다른데 특히 整齒音에 대해서 그렇다.
- (2) 中國語 齒音은 齒頭音과 整齒音으로 구별되므로 이를 표기하기 위한 한글 字形을
제시했다.
- (3) 中國語 齒音 중 齒頭音은 그 청각 인상이 얹거나 얕은(淺)데 반하여 整齒音은 두
텃거나 깊다(深).
- (4) 우리 국어의 齒聲 스,ㅅ,ㅈ은 중국의 齒頭와 整齒간에 있기 때문에 齒頭와 整齒의
구별이 없다.

이들 두 文獻의 설명 중 특히 1a의 ()에 나타나 있는 夾注 部分의 字句의 해석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²⁾ 즉 “우리나랏소리에서 열브니”(1985:20)와 “우리나랏소리에서 두터브니”인데
一般的으로 “-에서”를 比較格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에서”를 處格으로 처리하여(金周弼
1985:20) 15세기 국어의 齒音이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中國語의 齒頭音과 같이 調音될 수도
있고, 整齒音과 같이 調音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강신항, 김주필).

이러한 해석은 일면 妥當性이 있는 듯하나 위의 두 문헌의 자료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중국어의 齒音과 우리 國語의 齒聲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데 그 근
본 의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齒頭音과 整齒音 규정은 訓民正音(解例
本) 原文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고 上記의 訓民正音 諺解本과 四聲通攷 凡例에 나타난 설명으

2) 허웅(1964)를 비롯한 이기문(1972b), 강신항(1983) 등 대개의 인용에서는 문제의 “-에서”를
비교격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경향인데, 김주필(1985)은 이를 현대국어에서 보통 사용하는
어법처럼 처격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로 이는 洪武正韻譯訓의 표음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착안 하면(姜信沆 1973:45 참조) 두 나라 言語의 齒音에 대하여 그 差異를 比較함으로써 정확한 表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問題의 “-에서”를 처격으로 解釋하는 것보다는 평이하게 比較格으로 解釋하여 “이 소리(齒頭音)는 우리 나라의 소리보다 얹으니...” 정도로 해석함이 온당한 것이다.

더욱이 국어의 齒聲은 齒頭와 整齒 사이에 있다는 것을 分明히 함으로써 國語에는 이 두 소리가 필요 없음을 물론, 그 位置의 關係를 明確히 밝혀주어 齒頭音은 우리보다 얹은 소리로 앞쪽에서 發音되고 整齒音은 우리보다 두텁다고 했으니 뒤쪽에서 發音되는 것을 暗示하고 있는데 이것은 音韻論의 觀點에서 通攷의 ‘深淺’과 잘들어 맞는 說明이라 할 수 있으며(姜信沆 1989), 또한 中世國語의 齒音이(後述하겠지만) 後行하는 母音의 環境에 따라 中國語의 齒頭音과 같이 調音될 수도 있고 整齒音과도 調音될 수 있다는 觀點에서도 問題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齒頭와 整齒 사이에 놓였다고 規定했으니 音韻論의 觀點에 依하여 i, y와 같은 前舌母音이 後행하는 경우에는 母音의 영향으로 調音點이 移動되는 반면 그 이외의 母音일 때는 이보다나는 後행쪽에 끌리게 되므로 구태어 處格으로 해석하여 틀에 맞추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文獻에 나타난 字句의 解釋을 떠나서 實際의 言語 資料를 통하여 中世 國語의 齒音의 音價를 밝히는 길이 보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2.2. 齒音 音價 摸索

우리는 이러한 音價를 自體적으로 밝히는 作業의 하나는 國語를 外國 文字로 表寫한 文獻과 外國語를 國語로 表寫한 文獻을 면밀히 檢討하여 各各 그 對當 表寫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考察하는 方法이다. 실제로 中國의 齒音과 우리 國語의 齒音을 살피는 데 있어서, 몽고어의 借用語와 그 正音轉寫表記의 對應關係를 보여주는 資料와 琉球人들의 日常生活 言語를 正音으로 轉寫한 海東諸國記 末尾에 수록된 語音 翻譯의 資料들을 利用해 왔다(李基文 1964, 1974b 및 金周弼 1985). 이들 資料를 다시 보이면

- 2a) 몽고어 sauγur(도구) → 正音. 사오리
 몽고어 sau-(坐) → 正音. 사우
 몽고어 natc'in(鴉鵑) → 正音. 나친
 몽고어 ajirγ-a(兒馬) → 正音. 아질게
 몽고어 jegerdemorin(赤馬) → 正音. 절다물
 몽고어 galjan(線臉馬) → 正音. 간자물
 몽고어 songor(海青) → 正音. 송골

- 2b) 原始日本語 shuri語(제 1 단계) shuri語(제 2 단계) 현대 shuri語
 *tukui → *tuki > tsuki → 즈기[tsɯkpi] → [tsitʃi](月)
 *miti → *miti → 미지, 믿지[mitʃi] → [mitʃi](直)
 *kutui → *kuti → 크지[kutʃi] → [kutʃi](口)
 *kazai → *kadze → 칸지[kadzi] → [kazi](風)

[P itʃu]피쥬 [P itʃo]피쵸 [P itʃ u]피쵸(人)

2a의 資料에 대해서 李基文(1972b:65, 1991:126-139)에서는 蒙古 文語(written mongolian)의 c, j는 i에 先行하는 環境에서만 國語의 ‘ㅅ, ㅆ’으로 되어 있고(나친 ← nacin, 아질게 ← ajirg-a) 그 밖의 母音들일 경우는 蒙古語의 口蓋音 j, c, ʃ는 國語의 ‘저, 자, 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간자 ← galja, 절다 ← je'erde) 즉 國語의 ‘ㅅ’과 蒙古語의 j(ʃ)는 同一하지 않으며 國語의 ‘ㅅ’에 y를 가해야 蒙古語와 同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中國國語에서도 오늘날 西北方言에서 보여주듯 國語表記 ㅅ, ㅆ은 i, y에 先行하는 環境에서도 齒莖音(齒槽音) [ts], [s]로 實現되었고 여기에 y를 첨가한 tsy, sy가 몽고 문어의 口蓋音 j, ʃ에 가까웠기 때문에 蒙古文語의 口蓋音과 a, e의 連結體에 y가 介入되어 ‘자, 저’로 轉寫된 것으로 解釋하는 見解다.

그런데 꼭 같은 資料를 가지고 이와는 對照的으로 解析한 金周弼 (1985:11-12)에서는 蒙古 文語의 口蓋音은 i, y에 先行하는 環境에 限定해서 나타나며, 非口蓋音은 i, y가 아닌 a에 先

行하는 環境에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中世國語의 表記 ㅈ , ㅅ 은 i , y 에 先行하는 環境에서는 口蓋音으로 실현되고 a 에 선행하는 環境에서는 非口蓋音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非口蓋音은 치조음 $[\text{ts}]$, $[\text{s}]$ 로 실현되고, 口蓋音은 硬口蓋齒槽音 $[\text{tʃ}]$, $[\text{ʃ}]$ 로 실현된 것으로 推定했다. 그러므로 “간자물, 절다물, 송골”에서 “ ja , je , fo ”를 ‘자, 저, 소’로 表記하게 되면 ㅈ , ㅅ 의 音價가 $[\text{ts}]$, $[\text{s}]$ 로 實現되기 때문에 口蓋半母音 y 를 介在시킴으로써 蒙古語의 口蓋音이 실현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 주었다는 解釋이다. 또한 이에 대한 해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Hattori(1978)에서 재인용한 2b의 資料를 利用해서도 같은 解釋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Hattori(1978)의 語音翻譯에 대한 Shuri方言 제2단계의 全貌에 대한 資料를 볼 수 없어 現 段階로서는 2b에 提示된 資料에 근거하여 正當한 해석이 과연 무엇인지 논의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설령 資料를 직접 확인했다 해도 語音翻譯에 나타난 160여개(필자의 조사로는 166개) 語辭만으로 충분히 이들 轉寫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試圖할 수 있을 지 매우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2b에는 실제 「語音翻譯」 資料에 散見되는 國語의 ‘자, 주, 샤’ 등의 ㅈ 에 대한 다음 例들과 같은 것을 例擧하지 않아 더 이상 解釋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卽,

‘시자(舌頭)’, ‘비즈자(羊)’, ‘오야비쥬(老鼠)’ ‘피샤(手足)’

등이 Hattori(1978)에서 실제로 Shuri方言 제2단계를 보여주는 再構形을 밝혀 놓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해석의 어려움이 加重될 뿐이다. 단지 蒙古 文語에 대한 資料를 가지고 觀點에 따라 두개의 解釋方法이 있을 수 있음을 理解하고자 한다. 두 解釋의 共通點을 굳이 찾아본다면 蒙古 文語에 대한 國語 轉寫表記에서 i , y 以外の 모음에 先行하는 環境에서는 國語 表記의 ‘ ㅈ , ㅅ ’은 $[\text{ts}]$, $[\text{s}]$ 라는 點에서 一致點을 보여 준다. 그러나 i , y 에 先行하는 環境에서도 前者(李基文1972b, 1991)는 $[\text{ts}]$, $[\text{s}]$ 로 실현된 것으로 보았으나 後者(金周弼 1985)는 $[\text{tʃ}]$, $[\text{ʃ}]$ 로 實現되었다는 見解인 點이 分明한 差異라 할 수 있겠다.

이 見解의 元初적 差異는 紋上の 齒音規定에서도 示唆되었듯이 中世國語의 齒音 ‘ ㅈ ’을 許雄(1964)에서 지적한 것처럼 舌端齒莖音(齒槽音) $[\text{ts}]$ 이었는데 口蓋化를 입어 舌背의 硬口蓋音 $[\text{tʃ}]$ 으로 變했다는 見解와 姜信沆(1983)에서 밝힌 바대로 즉, 中世 國語의 치음은 漢音의 齒頭音과 整齒音과의 사이에서 調音되는 音이므로 ts 系列로도, tʃ (또는 tɕ)系列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中世國語의 齒音은 i , y 母音과 結合할 때는 硬口蓋齒莖音(palato-alveolar) $[\text{tʃ}]$ 또는 齒莖硬口蓋音(alveolo-palatal) $[\text{tɕ}]$ 로 실현되고 그 以外の 母音과 結合할 때는 舌端的 齒槽音(alveolar) $[\text{ts}]$ 로 實現되므로 結果적으로는 i , y 에 先行될 때는 tʃ , tɕ , ʃ 로 實現된다는 論據에 基本 原則을 각각 두는 見解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見解의 差異를 그대로 認定한다면 中世國語에 있어서 적어도 16세기 以前의 國語資料를 택하여, 전자의 見解로 資料分析을 수행할 때 齒音에 後行하는 母音對立이 엄격히 지켜져 ‘저(自): 저(自)’, ‘조(醋): 초(燭)’와 같은 辨別의 意味를 維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게 되며, 後者の 見解로는 이와 같은 辨別機能이 별로 크게 寄與하지 못했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問題를 보다 具體적으로 考察하기 위해서는 우선 當時 言語資料를 綿密히 檢討하는 作業이 이러한 두 見解의 妥當性 與否를 實證적으로 接近하여 事實을 糾明하는 方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中世國語에서 ㅈ , ㅅ 齒音의 실현을 두 見解에 따라 推定하면 다음과 같다.

3a.	중 간 단 계	
자[tsa] :	자[tsya]	[tʃya]~[tʃa]
저[tse] :	저[tsyə]	[tʃyə]~[tʃə]
조[tso] :	조[tsyɔ]	[tʃyo]~[tʃo]
주[tsu] :	주[tsyu]	[tʃyu]~[tʃu]
	지[tsi]	[tʃi]
샤[sa] :	샤[sya]	[ʃya]~[ʃa]
서[sə] :	서[syə]	[ʃyə]~[ʃə]
소[so] :	소[syo]	[ʃyo]~[ʃo]
수[su] :	슈[syu]	[ʃyu]~[ʃu]
	시[si]	[ʃi]

- 3b. 자[tsa] : 자[tʃya]~[tʃa]
 저[tsə] : 저[tʃə]~[tʃə]
 조[tso] : 조[tʃyo]~[tʃo]
 주[tsu] : 주[tʃyu]~[tʃu]
 지[tʃi]
 사[sa] : 사[ʃya]~[ʃa]
 서[sə] : 서[ʃyə]~[ʃə]
 소[so] : 소[ʃyo]~[ʃo]
 수[su] : 슈[ʃyu]~[ʃu]
 시[ʃi]

3a의 견지에서 보면 '자[tsa]: 자[tsya]'의 區別 표기는 中世國語에서 실제로 '저(自):저()'와 같은 의미의 差異를 變別 해주는 表記이므로 이러한 대립적 표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ㅅ'이 [ts]가 아니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口蓋音化의 단계를 거칠려면 ts가 tʃ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4) \quad ts \rightarrow tʃ / ____ \begin{pmatrix} i \\ y \end{pmatrix}$$

의 중간 단계를 일시적이거나 거쳐야 설명될 수 있다. 3b는 i,y에 先行하는 'ㅅ' 등이 [tʃ]가 되므로 앞에서와 같은 중간 과정이 필요 없게 되므로 '저(自):저()'와 같은 구별 표기는 실제로 유지할 수 없어 中世국어 자료에 이들 표기는 서로 혼란상을 드러냈을 것이란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두 해석과 관련하여 中世국어 文獻 資料를 檢討해서 'ㅅ' 등에 후행하는 單母音과 y계 二重母音의 混記 상태를 정밀히 고찰하여 이들 두 견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하는 것이 合理的 方法의 지름길로 믿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 예들에서 암시하듯 두 對立的 표기는 15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하여 다소 엄격하게 지켜지다가 時間의 흐름과 비례하여 점차 깨져 나간다는 것을 포착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기간 두 대립적 표기는 두드러지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言語 事實은 15세기 국어의 'ㅅ' 등 치음은 [ts]이며 이것이 차차 i,y 환경 앞에 구개음화를 입어 [tʃ]로 됨에 따라 對象 表記의 混記가 점차 확산된 것으로 믿어진다.

2.3. 齒音의 後行母音 混亂狀

먼저 訓民正音 반포 당시에 우리의 논의의 주제가 되는 i,y에 先行한 치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표기상이 그 뒤 문헌 자료에 어떻게 이어져 나타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한데, 다행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들 齒音 資料가 訓民正音(解例本) 用字例에 나타나서, 다음에 그 예를 제시해 본다.

- 5a. 자감(모밀 껍질: 필자주)
 저비(燕)
 조희(紙)³⁾
 종(奴)
 주련(여자의 수건: 필자주)
 죽(밥주걱: 필자주)

3) 沈在箕(1981:74)에서는 譯語類解(1690)의 '燒紙 종희술오다(譯上7)(필자주: 출전은 上25b의 誤記일듯함)'를 들고, '종희'에 대하여 '紙 조희지(字會上18), 도희(五倫二32)'를 근거로 15세기의 재구형 '도희'에 소급하는 것으로 보고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로 지적하고 있으나, 15세기의 訓正 用字例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이미 '조희'형이 나오고 있으므로 '도희'>'조희' 가설은 인정될 수 없다. '조희'(楞7:46a, 杜7:4a)

- 5b. 남상(龜)
섬(島)
소(牛)
슈름(雨)

위 5a는 'ㅅ'에 대당되는 것이고 4b는 'ㅅ'에 대당되는 예인데 이 두 예에서는 y후행 二重母音의 자료가 다 제시되었으나 이들이 15세기 다른 文獻資料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4a의 '슈런', '자감', '죽'은 재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우나 나머지 예들을 15, 16세기 자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6) 중: 月曲 52, 釋 6:5b, 9:16a, 東字會上 33a.
저비: 杜 15:22a-b, 東字會上 17a, 類上 12a, 百抄 4a, 11b.
조희: 楞 7:46a, 杜 20:17b, 東字會上 34b, 石千 37b, 39b.
섬: 龍 53, 67, 月 1:24a, 능 8:133b.
소: 龍 87, 月曲 24, 162, 釋 6:32b, 9:15b, 月 8:94b.
남상: 15, 16세기 자료에서 확인 안되고 17세기 東醫(2:6a)에 '남성'

이들 자료에서는 처음에 후행하는 二重母音의 混亂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히 15세기 齒音이 [ts]로 발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굳혀지게 한다. 上記 자료에서 뿐 아니라 15세기 기타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들 자료 중 예컨대 '중'과 같은 것은 그 출현 빈도가 많지만 항상 '중'으로 유지되는데 i, y 앞에서 [tʃ]로 발음되었다면 'tʃyV'가 'tʃV'로 變異된 資料가 한 두 개라도 露露되었을 듯한데 筆者의 조사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i, y 앞에 오는 齒音은 訓民正音 原本의 用字例 뿐만 아니라 그 뒤 龍飛御天歌(1447), 釋譜詳節(1447), 月印千江之曲(1447), 月印釋譜(1459), 訓民正音諺解(1459) 등 15세기 50년대 資料에서는 "저재(龍 6), 몬저(龍 114), 전츠(釋 9:12b), 중(僧)(龍 21), 중싱(龍 30), 섬(島)(龍 53), 선릭(龍 80), 소(牛)(龍87), 적(小)-(月 1:14b), 아천-(月 17:14a), 섬기-(龍11), 서(立)-(龍 28), 세(使立)-(龍 11), 세(白)-(龍 19), 섬-(月曲 139)" 등 일련의 어휘들에서 單母音으로 混記된 예는 찾기 어렵다.⁴⁾ 또한 60년대 資料에서도 극히 一部の 文獻 외에는 上記 資料와 같은 表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15세기 국어의 齒音이 齒莖音임을 여실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齒莖音이 i, y 앞에서 口蓋化를 입어 硬口蓋音으로 되었는가? 이를 文獻에서 확인하는 作業은

$$ts \rightarrow tʃ / ____\{ \begin{matrix} i \\ y \end{matrix} \}$$

를 찾아 결정하는 길이다. 즉 tsyV→tʃyV로 되면서 tʃyV ~ tʃV의 混亂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들 表記를 文獻에서 찾아 바로 그 時期를 齒音의 口蓋音化 時期로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許雄(1964)에서는 이 같은 混亂의 資料를 斥邪論音(1839)에서 처음으로 採集한 點으로 이

4) 劉昌惇(1964)의 李朝語辭典을 참고하여 齒音에 後行하는 二重母音과 單母音의 混記例를 採用함으로써 原刊資料와 상당한 差異를 보여주는 事例로 本稿의 자료와는 다른 몇 例를 指摘하면, 姜信沆(1983:30), 성희제(1990:8,9)에서 '섬기수'시니라(月二:10)의 '섬기-'는 原本(西江大所藏本, 月2:10a)에 '섬기-'로 分明하게 記錄되어 있으므로 單母音으로의 混記된 예가 될 수 없으며, '센하나비(龍歌19)'에 대한 單母音으로의 混記로 提示한 '더 세며(月-28)'는 희다(白)의 뜻이 아닌 '一百象두고더세며여숫엄가지고(月1:28a)'에서 보듯 '강하다'의 뜻이므로 實際의 混亂表記는 아니다. 또 '자불포(捕 石千 39)'의 '자-' 역시 石千(1583刊, 자불포:39a)뿐만 아니라 그외의 千字文(문헌목록 참조) 光千(1575), 石千A(1691), 石千B(1754), 七千(1661), 丙千(1696), 註千(1752), 註千A(1804), 千諺(1894)에 이르기까지 '자불-(石千, 石千A, B, 七千, 丙千, 千諺), 자불-(光千, 자불-(註千), 잠을-(註千A)' 등 單母音을 가진 '자-'로 一貫하여 나타나므로 混記의 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資料 利用의 錯誤가 있었음이 分明하다.

것이 실제 'ㄷ' 口蓋音化資料보다 나중 時期 文獻資料라는 데 이끌리어, 아마도 'ㄷ' 口蓋音化가 'ㅅ' 口蓋音化보다 先行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一般으로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ㅅ' 口蓋音化가 先行되지 않고는 'ㄷ' 口蓋音化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은

$$t \rightarrow tʃ / ___ \begin{Bmatrix} i \\ y \end{Bmatrix}$$

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것이다. 즉 15세기 국어에서는 敍上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처음이 口蓋音化를 입어야 진정한 'ㄷ' 口蓋音化를 기대할 수 있으니 그것은 ts → tʃ로 된 후에라야 위식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齒音의 變異과정과 口蓋音化의 關係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齒音 다음의 二重母音의 혼란 표기를 文獻 資料에서 찾아낸다는 것은 口蓋音化 현상의 가능성을 밝혀주는 作業이므로 그간 通時的으로 口蓋音化를 연구하는 論著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나 口蓋音化가 一般的으로 中央語에서 近代國語 이후의 산물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近代國語 以前 資料를 소급하여 정밀한 검토는 별로 없었던 듯하다. 拙稿(1974)에서는 16세기 이후 자료를 주 대상의 자료로 간주했기 때문에 16세기 初 翻譯小學(1518)까지 이들 混亂표기를 소급하여 찾았던 것은 許雄(1964)의 19세기 初보다는 무려 2세기가 앞선 것이었으나 15세기 국어자료를 제외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이상의 口蓋音化 연구의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차제에 15세기 자료까지 검토하여 다음에 그 혼란상을 엿보기로 한다.

楞嚴經諺解(1461)

조개(7:83b)(木板本) cf. 조개(8:55b)(木板本)⁵⁾
(7:74b)(鑄字本) (8:47b)(鑄字本)

圓覺經諺解(1465)

a. 전치(전치) cf. 전치(상2-2:140b)
(상1-2:38a)
(상2-2:140b)
(상2-3:12b)(2회)
(하1-2:29b)
(하2-1:15b)(*하2-1:25a, 하1-2:30b는 탈각인 듯함)
몬저(하2-2:25b) cf. 몬저(하3-2:62b)
(하3-2:61a)
b. 처엄(하2-1:17a) cf. 처엄(상2-2:126a)
처엄(하3-1:59b)
첫(하2-2:21a) cf. 첫(상2-2:99a)
저(하3-2:35b) cf. 저(自)(상1-1:67b)
저커니(하2-3:40a) cf. 장다(畏)

救急方諺解(1466)

몬저(상31b) cf. 몬저(상39b)

牧牛子修心訣(1467)

몬저(10b, 25a, 30b, 35a, 35b, 37a, 37b)
cf. 몬저(24b, 29a)

5) 南豊鉉(1983:227)은 '靑乙召只'(藍類)에서 '召'는 13世紀의 漢字音이 '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吏讀의 '召史(조시>조이>조이)'도 이를 뒷받침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조개를 나타내는 표기에 '召'로 쓴 것은 屈召介甲(鄕藥上:16), 屈召介(同 상:9)가 보이며, 또한 '曹'가 쓰여진 것은 大屈乙曹介(鄕約採取月令:12月, 鄕藥集成方82-19a) 등이 보인다.

韻譯小學(1518)

시절(6:10a, 7:12a, 43a, 8:19b, 9:39a, 72a, 96b)
cf. 시절(6:17a, 7:32b, 9:30b, 9:55a, 72a, 10:32a)

訓蒙字會(1527)

: 샤(예下 9b) : 사(동下 21b, 존下 21b)
: 쇼(예上 11b) : 소(동上 21b, 존上 21b)
: 쇼(예中 14a) : 소(동中 28b, 존中 28b)
訟 : 송(예下 14a, 동下32b) : 송(존下 32b)
瞬 : 순(예下 12a, 존下 28a) : 순(동下 28a)(탈각인듯함)
炙 : 자(예下 6a) : 자(동, 존 13a)
嚼 : 작(예下 7a, 존下 14b) : 작(동 14b)
漿 : 장(예中 10b) : 장(동 20b, 존 20b)
醬 : 장(예中 10b) : 장(동 21a, 존 21a)
: 장(예中 13b, 동中 27a) : 장(존 27a)
: 청(예中 3b, 존 6a) : 청(동 6a)

敍上에 보이듯이 15세기 50년대까지만 해도 처음에 후행하는 y계 이중모음의 混記는 엿보이지 않는데 60년대 문헌에서는 이들의 혼란된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다. 더욱이 같은 문헌 자료에서의 同一語의 표기를 다르게 표기한 것은 단순한 우연성에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이를 非音韻論的 해석보다는 音韻論的인 원인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牙音이나 舌音 등 餘他의 소리 아래서 後行하는 y계 二重母音이 混亂되지 않은 것과 좋은 對照가 되는 것으로 유독 齒音에 후행하는 모음이 드물기는 하지만 同一 文獻의 同一語의 表記을 混記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音韻論的으로 치음과 i,y계 母音의 相互 關聯이 다른 音들과의 그것보다 緊密한 관계에서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고려되는 사실을 같은 齒音이라 할지라도 i,y 이외의 母音과 결합된 어휘들에서는 엄격한 表記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齒音에 結合된 音節構造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豫見할 수 있는 示唆를 받게 된다. 즉 tsyV와 tʃyV의 두 構造 중 後者の 構造가 音韻論的인 관점에서 볼 때 硬口蓋音 아래에서 y 脱落이 齒音 다음에 y 脱落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宋敏1985 참조) 즉 15世紀 國語에서 's' 등의 齒音이 [ts]인가 아니면 [tʃ]인가(前述 참조)의 문제는 원래부터 [tʃ]였다면 그를 反映한 表記體에서 쉽게 混亂된 모습을 드러내 주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混亂을 그렇게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된다.

15세기 50年代까지의 文獻資料에서 齒音下의 y 계 二重母音의 連結體는 별 混亂 없이 維持되었다는 사실은 15世紀 國語에서의 齒音이 後行되는 모음에 左右되지 않고 [ts]이었을 蓋然性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15세기 60년대에 y계 二重母音 앞에서 먼저 混亂되고 그것이 's' 보다는 's' 계가 더 先行되고 있다는 데 注目할 必要가 있다. [ts]가 [tʃ]로 된 環境은 y 계 二重母音 앞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s]가 [ʃ]로 變異된 것은 이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위의 初期 資料에 의거해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齒音과 齒音에 後行하는 y계 二重母音의 混亂에 대한 檢討를 통하여 17世紀 前期까지의 混亂을 第1段階 混記, 그 以後의 混記를 第2段階 混記로 指稱하고, 第1段階 混記의 특징은 y계 二重母音을 그에 對當하는 單母音으로 混記되며, 17世紀 後半부터 그 以後의 混記 即 第2段階 混記는 齒音 아래 單母音을 그에 對當하는 y계 二重母音으로 混記된 時期임과 아울러 이 時期는 第1段階의 混記까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으나(김주필 1985: 22-25), 이에 대하여는 우선 본 고의 상기 자료가 그 是非를 명쾌히 가리어 주리라 믿어진다.

1,2 段階의 混記에 대한 充分한 資料 檢證이 우선 先行되지 않고는 그러한 假說이 國語史의 정한 音韻變遷을 밝혀 주지는 못할 듯하다. 第1段階 混記를 韻譯老乞大와 訓蒙字會(拙稿; 1974에서 漢字音만을 제시한 바 있음) 단 두 文獻資料만을 중심으로 하여 예시한 점과, 第2段階 混記에 대해서도 誤謬된 몇 資料를 가지고 새로운 國語音韻史의 흐름을 指摘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 資料를 통하여 이미 15世紀 一部 文獻에서부터 齒音에 後行하는 y계 二重母音이 混亂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 以前의 二重母音이 單母音으로(소위 第1段階 混

記) 混記되기도 하며, 동시에 齒音 다음의 單母音이 그에 對當되는 y계 二重母音으로 바뀌기도 하는(소위 第2段階 混記)現象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새롭게 認識할 수 있다. 따라서 17世紀 中葉을 分水嶺으로 하여 그 以前을 第1段階, 그 以後를 第2段階로 設定한 根據는 매우 稀박한 것이 아닌가 한다.

15世紀 文獻資料인 圓覺經諺解에서 원래의 單母音 表記였던 '처엄, 저(自), 장(長)-'가 그에 對當되는 '쳐엄, 저, 정-'로 混記되고, 二重母音 表記였던 '전추, 몬져'가 그에 對當하는 單母音인 '전추, 몬저' 등으로 混記되고, 楞嚴經諺解에서 '조개'가 그에 對當되는 二重母音형 '조개'로, 同一文獻內에서 각기 다른 두 形態로 混記되고 있다는 것은 混記 發端過程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는 매우 소중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두 相異한 混亂狀에 대하여 그것이 어느 時期를 그어 그 以前과 以後를 뚜렷이 구분하여 주는 音韻史의 段階를 설정할 수 있는 通時的 現象의 結果를 보여주는 資料가 아니라 共時的 音韻現象의 露頭을 드러내고 있는 소중한 자료로, 外觀上 混記된 母音 形態는 單母音이 그에 對當하는 二重母音으로 混記된 語彙가 오히려 더 많으므로 相反되는 現象이나, 적은 頻度數를 감안하여 現在로서는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斷定하기보다는 同 時期에 다 같이 混記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妥當한 解釋이 아닌가 생각한다.

3. ㅅ 口蓋音化的 條件

敍上的 正音 初期의 資料들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ㅅ 口蓋音化는 y에 先行하는 非口蓋音(齒莖音) [ts]가 口蓋音(舌背의 硬口蓋音) [tʃ]으로 隨意變異(free variation)를 일으키게 된 데서 비롯되고 그 影響으로 y 이외의 母音 環境의 領域에까지 ㅅ 口蓋音化가 擴散된 것으로 믿어진다.(宋敏 1985:71) 여기서 우리는 ㅅ 口蓋音化的 條件과 그 擴散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檢討하지 않으면 ㄷ 口蓋音化的 出現을 올바로 解釋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考察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正音 初期인 1460년대 前半期까지의 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증거는 이 ㅅ 口蓋音化는 첫째 齒音 중 ㅅ系音이고 둘째 y 앞의 語頭 環境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注目하게 된다.⁶⁾ 15世紀 國語에서 ㅅ系 口蓋音化 흔적은 圓覺經諺解 資料(a) '쳐엄'을 除外하고는 달리 찾아 볼 수 없어 어쩌면 誤刻일 可能性도 있으나 그외의 자료들은 모두 ㅅ系에 局限되고 있으며 初期에 語頭에서 비롯된 것이 곧 非語頭로 擴散하고 '조개'를 제외하면 語頭이건 非語頭이건 齒音에 後行하는 母音이 여(ya)와 어(a)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諸 事實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根本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初期 段階의 齒音의 口蓋音化를 바르게 이해하는 捷徑이 되리라 여겨진다.

正音 初期 資料에 따라 첫째 번 사실을 토대로 'ㅅ'의 連結體에 대한 音節 構造를 살펴보면 tsy^a 및 ts^a가 되며 이것이 口蓋音化할 때의 分節音의 一般式은

- 7)a. ts → tʃ/_____yV
b. ts → tʃ/_____ V

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環境 i를 除外한 것은 j 앞에서 ㅅ의 混亂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除外시켰다. 7a)는 齒音에 後行하는 母音이 y계 二重母音이므로 混亂된 狀態는 그에 對當하는 單母音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7b)는 後行하는 母音이 單母音이기 때문에 混亂되는 음은 그에 對當하는 y계 二重母音으로 實現되게 될 때 우리는 그 混亂狀을 비로소 원래의 形態와 區別해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周知하는 바와 같이 두 規則 以上이 言語現象에 適用될 때 그 適用 順位가 있게 마련이므로 위의 두 식에서 어느 식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는 두 規則을 併合한

- 6) '지, 질' 등 i앞에서의 'ㅅ' 口蓋化的 例는 混亂여부가 表面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실제 資料로는 例擧하지 못하나 아마도 yi와 같은 基底形을 가상하여 설정할 수 있다면 初期資料를 근거로 y 앞의 ㅅ이 口蓋化된다고 일괄해서 말할 수 있을 법 하나, 訓民正音 解例에서도 y^a, yi에 대하여는 그 存在를 示唆하고 있으나 yi만은 아무 중언도 發見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친 비약이라 더 부연하지 않으나 y계 二重母音 앞에서 ㅅ이 口蓋音化를 일으키고 'ㄷ' 口蓋音化 현상의 露頭에서 單母音과 연결된 音이 '진.딛' > '진.짓'처럼 去聲이거나 上聲이 優勢하므로 비약된 상상을 펴 볼 수 있겠으나 이점에 대하여는 後稿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7)c. $ts \rightarrow tf / ______ (y)V$

를 상정하면 最大優先適用原則(the maximal application priority principle)에 따라 7a식이 먼저 異接的 順序(disjunctive ordering)로 적용되는데 s 의 口蓋音化에 대한 資料를 檢討하면 실제로 7c식으로 나타내도 좋을 듯 생각된다. 왜냐하면 초기 段階에서는 y 앞의 s 이 口蓋化를 입고 그에 影響에 따라 바로 餘他の 環境에 있는 s 이 口蓋音化를 입어 이들도 그에 해당하는 二重母音으로 混記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7)a식에서 먼저 口蓋音化되는 現象을 면밀히 考察해야 할 것이다.

위 資料에서 具體的으로 '저'가 '저'로 나타나 混亂을 보인다는 것은 $tsya \rightarrow tfya \rightarrow tfa$ 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런 過程에 適用되는 規則은 ts 가 y 앞에서 tf 로 口蓋化 되는 規則과 y 가 tf 아래서 脫落하는 規則이다. 즉

8)a. $ts \rightarrow tf / ______ ya$: $ts \rightarrow tf / ______ yV$
 b. $y \rightarrow \emptyset / tf ______ a$: $y \rightarrow \emptyset / tf ______ V$

規則 適用 順位는 7a)에서 본 것처럼 $a \rightarrow b$ 順序가 되어야 한다. $b \rightarrow a$ 가 된다면 口蓋化의 同化 主인 y 가 脫落되어 ts 의 口蓋化는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規則의 最大適用(maximum application of rules)을 하기 위해 出血(bleeding)을 포기하고 給與(feeding) 關係를 導出하는 쪽으로 規則 配列이 일어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Kiparsky 1965, 1982: 40-41). 이러한 현상은 비단 $tsyV$ 뿐 아니라 餘他の 口蓋音化와 관련한 일련의 tyV , nyV , lyV 에서 꼭 같이 일어날 수 있다(宋敏1985: 72).

3.1. 後行 母音들과의 關係

正音 初期 資料에서 確認되는 둘째 번 사실에서 y 계 二重母音에 先行된 'ㅅ'이 우세하고 그 중에서 語頭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條件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저[$tfya$]'가 '저[tfa]'로 混記된 사실은 첫째 7a, 8a에서 ' tfy '의 構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같은 사실을 다르게 解釋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tfya$ 가 tfa 로 混記되었다는 데서 母音 連結體 '- ya '와 'ㅅ'에 착안하여 'ㅅ'이 'ㅈ'로 混記된 주 原因을 中世國語 母音體系에서 'ㅈ'의 特性을 考慮해서 原因을 찾는 方法이다(金周弼1985: 28-40). 먼저 後者の 見解의 根據를 살펴 과연 그러한 追跡과 說明이 中世國語 'ㅅ'의 口蓋化를 說明하는 데 最善의 길인가를 논의하는 한편 前者를 한 데 묶어 說明하고자 한다.

齒音 아래 y 계 二重母音이 그에 對當되는 單母音으로 바뀌는 混記를 '後行母音의 第1段階 混記'라고 지칭하고, 齒音 아래 單母音이 그에 對當하는 二重母音으로 混記되는 한편 第1段階의 混記와 같은 現象이 아울러 共存하는 段階를 '後行母音의 第2段階 混記'로 命名하고, 그 분수령이 되는 時期는 17세기 中葉으로, 前者는 17世紀 前期 以前, 後者는 17세기 後期 以後의 現象으로 보고(1985: 23-24) 第1段階의 混記의 資料로는 翻譯老乞大와 訓蒙字會, 第2段階로는 老乞大諺解(1670), 朴通事諺解(1677), 譯語類解(1690)를 들어 論證했는데 紋上에서 보듯 後者の 資料는 誤謬된 資料이고 前者는 16世紀 初期 資料이므로 우선 混亂의 時期부터가 잘못 선정되고, 資料 역시 確실한 證據가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일단 '第2段階 混記'의 假說은 폐기할 수 밖에 없으며 '第1段階 混記'의 時期만을 15世紀로 소급시켜 認定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급이 可能하기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그 原因이 母音 'ㅈ'의 特性에 비롯된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이 논의는 中世國語의 母音에 대하여 李基文(1972b), 金完鎭(1978)에서 推定한 두 개의 代表되는 母音體系를 들어 'ㅈ'의 特性을 說明했다.

9) a.

이	으	우
	어	오
	아	우

李基文(1972b)

b.

이	으(우)
어	오(오)
아	

金完鎭(1978)

‘어’를 추적하여 9)a에서는 ‘이’ 이외의 前舌 영역이 비어 있어 ‘어’의 音聲 실현이 前舌의 位置에까지 實現되어 mid-front wide sound의 母音으로 實現될 수 있고 9)b體系에서는 體系 자체에서 ‘어’는 前舌이므로 이 두 體系의 성격으로 ‘어’는 [+front]자질을 갖는 영역에서 실현되므로 ‘어’는 前舌高口蓋位置에 가까워 tʃyV~tʃV, ʃyV~ʃV의 隨意的인 交替를 反映하는 後行母音의 第1段階 混記에 ‘여’가 ‘어’로 민감하게 反應한 것이며 ‘저’가 ‘저’로, ‘서’가 ‘서’로 混記되는 것은 tʃyʌ가 tʃʌ로, ʃyʌ가 ʃʌ로 實現됨을 의미하고 tʃ와 ʃ 뒤에서 yʌ와 ʌ가 잘 區分되지 않는 것은 ‘어(ə)’가 口蓋音 tʃ, ʃ의 位置에 가까웠기 때문이라 해석했다(p.30).

위의 논의에서 자세하지 않으나 母音體系를 들어 ‘어’가 前舌高口蓋位置에 가까워 第1段階 混記에서 ‘여’가 ‘어’로 민감하게 反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논자도 주장했 듯이 第1段階 混亂에서는 같은 y계 二重母音인 ‘ㅛ’는 ‘ㅜ’로 混亂되는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두 母音體系에 입각해 直感的으로 알 수 있고 ‘ㅕ, ㅖ’ 혼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中央方言의 文獻인 1588年 刊行(內賜記刊年) 小學諺解(5:107a)에 ‘류존후- > 추존후-’와 같이 t 口蓋音化가 ‘ㅕ/ㅖ’의 先行位置에서 일어난 사실이 示唆하듯, t 口蓋音化가 ts 口蓋音化를 前提로 할 때 敍上 자료 중 ‘조개-조개’의 混記를 단순한 例外 表記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에서는 母音體系에 대한 實質을 [front]로 說明했으나 具體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母音 서로 간의 實質에 대한 親密性은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아마도 前舌高口蓋位置에 가까워 ‘ㅣ’가 ‘ㅣ’로 反應했다는 점과 9)a에서 ‘이’만이 [front]이라는 점을 논의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어’가 갖는 實質의 親密性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解釋한 듯하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Halle & Mohanan(1985)과 Schane(1973)에 의한 實質 명세에 따라 9)a, b의 母音體系 중 ‘어’와 ‘이’에 혀몸자질(body of tongue feature)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0) / ə / (9a)	/ ə / (9b)	/ i / (9a, 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 high - low + back - round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 high - low - back - round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 high - low - back - round </div>

결국 9a의 母音體系에 의해서 ‘이’와 ‘어’의 相互 實質의 親近性은 [high]과 [back] 두 實質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9b보다는 덜 親密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音聲 實現 領域에서 보면 9b보다 9a가 오히려 前舌쪽이 빈칸을 形成하기 때문에 두 音의 混亂은 9b보다 더 잘 일어날 蓋然性도 排除할 수 없다. 단순히 實質理論의 特性으로 보면 아무래도 9b보다는 9a에서 ə가 i와의 관계가 더 緊密하게 作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될 것이다. 아무튼 母音體系에서 豫想되는 여러 制約은 本稿에서 논의할 性質이 아니므로 더 부연 않으나 이런 여러 要因을 考慮하는 母音體系를 토대로 ‘ㅣ’가 ‘ㅣ’로 混亂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說明할 수 있을 지 의문된다.

요컨대, ‘저, 저’의 混亂에서 母音 ‘ㅣ’가 ‘ㅣ’(y→ə)에 착안하여 齒音 아래 母音 混記 現象의 根本 條件을 해명하려는 중요한 방법은 ‘ㅣ(y)’의 脫落을 유도하지 않고서는 解決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없고, 나아가서 왜 ‘ㅣ’가 脫落되는지 아무런 해석도 없다.⁷⁾ 논자의 意見에 따라 유리한 9)b 체계를 택하여 母音實質式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될 것이다.

10') /이/	+	/어/	→	/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high -low -back -round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high -low -back -round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high -low -back -round </div>

7) 口蓋音化에서 일차적으로 주요한 사실은 ‘이(i)’ 모음이 아니라 口蓋半母音 ‘ㅣ(y)’이라는 점은 現代 英語方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로 指摘되고 있는데(Halle & Mohanan 1985:85, miss you→[mɪsyə], did you→[dɪjə] miss it→[mɪsɪt] did it →*[dɪjt]), 中世 國語 母音體系圖를 들어 母音 ‘이, 어’의 相關關係만을 고려하고 정작 필요한 ‘y’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

10')식에서 '이'에 대한 實質式을 삭제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母音을 하강시키는 規則(vowel lowering rule)을 導入하여 [+high]를 [-high] 實質을 가진 母音으로 전위(shift)시켜 實質 變化를 유도하여야만 가능한데 이것은 건강부회이므로 정당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상으로 우리는 치음의 口蓋音化가 단순히 齒音에 後行하는 母音 相互間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現象이 아니라는 점을 예측하리라 생각한다.

3.2. y에 先行하는 齒音의 口蓋音化

스 의 口蓋音化는 분명히 그 連結 構造 tsyV→tʃyV~tʃV 에서 예견하듯 ts 및 tʃ와 y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올바른 解釋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위의 논의와 다른 첫째 번 근거에 의해서 '스' 口蓋化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tsyæ → tʃyæ~tʃæ에서 tsyæ 또는 tʃyæ가 말해주는 것은 ts, y 相互間의 親密性和 tʃ, y 相互間의 친화력 중 어느 것이 더 親密한 것인가를 밝히는 解釋과 관련된다. 이를 調音位置 實質(place of articulation featur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a. /ts/

$$\begin{bmatrix} + \text{ant} \\ + \text{cor} \end{bmatrix}$$

b. /tʃ/

$$\begin{bmatrix} - \text{ant} \\ + \text{cor} \end{bmatrix}$$

c. /y/

$$\begin{bmatrix} - \text{ant} \\ + \text{cor} \end{bmatrix}^8)$$

11)의 實質式을 관찰하면 15世紀 國語에서 '저'가 '저'로 混記되었다는 것은 齒莖音 ts가 口蓋 半母音 y에 先行해서 y 實質의 影響을 받아 y와 같은 實質을 가진 tʃ로 바뀌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종의 同化現象에 基因되며 tsyV가 tʃyV로 됨에 따라 같은 口蓋性的 連結體 중 y를 脫落시킴으로서 tʃyV~tʃV로 되어, '저'가 '저'로 混記되는 音聲 實現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⁹⁾

tʃy → tʃ-의 脫落관계를 調音位置 實質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tʃ-/ + /y/ → /tʃ-/

$$\begin{bmatrix} - \text{ant} \\ + \text{cor} \end{bmatrix}$$

$$\begin{bmatrix} - \text{ant} \\ + \text{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ant} \\ + \text{cor} \end{bmatrix}$$

12)식에서는 y자질이 tʃ 實質과 같기 때문에 구태어 y 脫落에 대한 특별한 規則을 導入하지 않아도 쉽게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며, 이것이 中世國語에서 '저→저'로 混記되는 根本 조건이 될수 있음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tsyV→tsV 變化를 直接的으로 받아 들일수 없기 때문에 齒音에 一次的 口蓋化를 예상하지 않는 段階에서는 '저:저, 초:초' 등이 混亂되지 않고 意味對立을 이룰수 있는 것은 ts 實質이 [+ant, +cor]이므로 직접 y 實質을 삭제시킬 수 없다는 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중세국어의 구개음화 과정의 전제가 되는 중세국어의 치음의 구개음화에 대하여 고찰한 바 그 대체적인 요점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중세국어 중 훈민정음 당시인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 치음 스, 츠 등은 근대국어 이후의 그것과는 달리 구개음인 tʃ, tʃ'이 아니라 치경음인 ts, ts'이었음을 재 확인해 보았다.

8) Halle & Mohanan(1984)에서는 종래 i, y에 대해서 [-ant], [-cor]의 자질을 부여한 것을 거부하고 coronal에 대하여 + 값을 줌으로써 자음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안했다.

9) Halle & Mohanan(1985:85)에서 구개음화를 야기시키는 y는 구개-치경 자음(palatoalveolar consonants) 다음에서 떨어짐을 지적했다. 즉 기저 /ræs+yæl/(racial)이 [reysəl]은 되나 *[reysyəl]은 안된다고 했다.

이 사실은 처음에 후행하는 y계 이중모음의 혼기를 15세기 50년대까지의 문헌자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둘째, 15세기 60년대 문헌부터 비록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일부 자료에서 처음에 후행하는 y계 이중모음의 혼기는 시작된다. 이 사실은 그 때까지의 國語의 치경음이 口蓋音으로의 變化되는 과정의 첫 노정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믿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처음 다음의 모음의 혼란이 유독 y계 모음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은 처음의 구개음화가 먼저 y계 이중모음 앞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임을 시사해 준다.

넷째, 처음의 구개음화 중 대표되는 'ㅅ' 구개음화는 tsya → tɕya ~ tɕa에서 감지되듯 치경음 ts가 구개 반모음(glide) y 자질 (feature)의 영향을 입어 y와 같은 자질을 가진 tɕ로 바뀌는 동화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결과 tɕyV ~ tɕV가 되어 혼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조음위치 자질(place of articulation features)로 보이면

/ tɕ- / + / y / → / tɕ- / 에서

$\begin{bmatrix} -ant \\ +cor \end{bmatrix} \quad \begin{bmatrix} -ant \\ +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ant \\ +cor \end{bmatrix}$

y자질이 쉽게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 자'로 혼기되는 근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끝으로 앞의 넷째 사실과는 달리 tsyV → tsV로 변화는 직접 유도될 수 없는 현상이므로 15세기 국어에서 처음의 口蓋化를 일으키지 않는 단계에서는 저:저 초:초가 혼란되지 않고 일정한 의미대립을 견지할 수 있게 된 것도 ts자질이 [+ant, +cor]이므로 y 자질을 삭제할 수 없는 데에 밀바탕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요컨대 15세기 처음은 同世紀 60년대부터 점차로 口蓋化音으로 변화되면서 오늘날의 ㅅ[tɕ], ㅆ[tɕ']인 口蓋音으로 굳혀진 것으로 결론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姜信沆(1983), “齒音과 한글表記”, 國語學 12.
 ———(1987), “韓國漢字音內 舌音系字音의 變化에 대하여”, 동방학지 54-56.
 金尙敦(1990), “구개음화에 대하여”, 韓國語學新研究(于雲朴炳采教授 停年 退任紀念).
 金永錫, 李相億(1992), 現代形態論, 學研社.
 金完鎭(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에 대한 反省” 語學研究 14.2
 金周弼(1985),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研究”, 國語研究 44.
 南豐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성희제(1990), “국어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 대학원).
 宋 敏(1985), 前期 近代國語 音韻論研究 - 특히 口蓋音化와 音을 中心으로, 塔出版社.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安秉禧(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 口蓋音化에 대하여”, 一石李熙昇 先生頌壽記念論叢.
 안상철(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出版部.
 李基文(1964), “Mongolian Loan-Words in Middle Korean,” Ural-Altaische Jahrbucher 35.

- _____(1971), 訓蒙字會 研究, 韓國文化研究所.
- _____(1972a), 改訂 國語史 概說, 民衆書館.
- _____(1972b), 國語音韻史 研究, 韓國文化研究所.
- _____(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 李明奎(1974), “口蓋音化에 대한 文獻的 考察”, 國語研究 31.
- _____(1992),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的 研究”, 學位論文(崇實大)
- 田相範(1977), 生成音韻論, 탐출판사.
- 許 雄(1964), “齒音攷”, 국어국문학 27.
- 洪允杓(1985),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研究”, 震檀學報 60.
- Bht, D. N. S. (1974), A “General Study of Palatalization” Universal of Human Language 2 : Phonology, ed.Greenberg,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lle, M & K. P. Mohanan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rden English, L.I. Vol.16-1.
- Kiparsky, P. (1965), Phonological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Ladefoged, P. (1982), “A course in Phonetics”(2nd ed.),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ohanan, K. P. (1981), “Lexical phonology”, ph.D.dissertation, MIT.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Foris.

우편번호: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 명 규